“호남 발전, 민주당과 경쟁구도 만들어야”

평화당 지도부 전남 총출동 지방선거 전폭 지지 호소
도지사 후보 박지원 의원 대안 민영삼 최고위원 부상
조배숙 대표 “4월말-5월초 도지사 후보 발표하겠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5일 지지기반인 전남에 총출동해 6·13지방선거에서 호남발전을 위한 경쟁구도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텃밭을 놓고 경쟁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댓글 조작, 구청장 예비후보 폭행,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 잡음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펴부었다.

평화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13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조배숙 당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성권씨가 수행 비서를 성추행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옷을 찢는 폭행을 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니 안희정 사건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회의가 열리는 무안 인근 하의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당이 바로 민주평화당이고 평화당의 정신은 호남정신”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 맞서 전남지사에 나설 후보에 대해서는 “4월말 또는 5월초 좋은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겠다”며 후보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평화당 도지사 유력한 후보인 박지원 의원이 교섭단체 유지 문제로 출마가 불투명한 가운데 박 의원 대안으로 민영삼 최고위원이 도지사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뛰어야 호남이 돌아간다.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마련돼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당 소속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을 뽑아줘야 호남발전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도 “내년 전남도의 7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민주평화당의 목표”라며 “평화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지역 민들께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평화당이 내부적으로는 결정하고도 막판 변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 지방선거의 간판인 전남지사 후보 공천을 마냥 미룰 수도 없으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후보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무안군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충우돌’ 민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

김삼호 컷오프→재심 인용…윤난실 강력 반발
김영록·윤봉근 단일화 추진했다 철회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삼호 후보가 컷오프돼 김영록·윤난실·윤봉근 후보간 3자 경선이 예상됐으나 중앙당이 김삼호 후보의 재심을 인용해 4자 경선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영록·윤봉근 후보는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4자 경선이 결정되자 단일화를 철회했다. 민주당과 후보자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삼호 예비후보의 컷오프 탈락과 관련한 재심 청구를 인용키로 했다.

당초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영록·윤난실·윤봉근 후보가 치르기로 했지만 이날 재심 인용으로 김삼호 후보까지 4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삼호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당 심사에서 김삼호 후보가 컷오프 된 뒤 김영록·윤봉근 후보는 지난 24일 단일화를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김삼호 후보의 부활로 단일화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김영록·윤봉근 후보 측은 “윤난실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여성 가산점을 얻는 데다 전략공천설까지 돌아 이를 막기 위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4자 경선이 된 상황에서 단일화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난실 후보도 발끈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지만 정치적 결정이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불법 당원 모집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후보의 검찰 공소장을 심사해 부적격 후보로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 가산점을 이유로 두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한 것도 안타깝다”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민주 신안군수 후보 경선 보류 반발…도당 점거 농성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의 경선 보류 방침에 반대하면서 전남도당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석배·임흥빈 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들은 25일 오전 무안 남악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단체장 공천이 보류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실체 없는 전략공천설로 군민과 당원들의 동요가 커져만 가고 있다. 특정 무소속 후보와의 밀약설 등 온갖 음모설이 가세하면서 민심이 폭발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4명이 출마한 민주당 신안군수 경선은 지난 8일 전남도당의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 이후 보류지역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대표실 부실장을 지낸 천경배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전략공천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묻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면서 면접 후 실시한 적합도 여론조사와 일정에 없던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결과 공개, 당원명부 거래 및 유출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장휘국 시교육감 “3선 도전” 공식선언

교육적폐 청산·중단없는 교육개혁 추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6·13지방선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선에 성공해 혁신교육으로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실혁명’을 완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8년은 쉼 없이 혁신교육을 밀어 올려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시민 모두가 광주 교육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선도했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배움중심 교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겨울을 이겨내는 데에도 봄을 맞이하는 데에도 언제나 광주교육이 한 발짝 먼저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책은 직선 1·2기,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이 추진한 혁신교육과 같다”며 “교육대개혁은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질문이 있는 교실’ 완성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등 핵심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핵심공약으로 교육 협치 강화,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경쟁교육 혁파, 학교업무 정상화 지속 시행,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없는 친환경 급식, 수학여행 등 남북 교육교류 사업 실시, 학교 비정규직 없는 광주 등을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 각 분야는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학벌 중심 사회, 이윤 중심 사회를 유지하려는 거센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져 온 교육적폐를 청산할 기회이며, 경험 많은 장휘국이 그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다음달 1일 예비후보 등록 후 국립 5·18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광주시교육감 선거전도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과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이개호, 해양치유산업 정책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활용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치유산업 및 지역기반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정신적 안정과 힐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는 치유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산림치유’의 개념과 같이 해양기후, 해수, 해니, 해염, 해사, 해양생물 등의 해양치유 자원을 치료·건강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황주홍·윤소하 ‘우수 국회의원 대상’

황주홍

윤소하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프리미엄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은 황주홍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남인순, 박완주, 설훈, 윤호중 의원 등 총 7인이 수상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세정 공인 중개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동 871-35
010-7574-9985 / Fax. 062-941-3006

◈ 상가 ◈
◈ 광주시광산구송정동대지101평 건평 160평
3층상가건물 투자적합 매매가▶9억1천만 조정안됨

장성 나노단지 근린상가 2종현재 6차선접
▶800평당 290만

◈ 과수원 ◈
나주시 영산동 ▶2530평당15만원
나주배 특구 투자처 확실

◈ 원룸 ◈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80평 룸19실 2014년 준공 ,시티
목욕탕 옆, ▷융2억 보1억 월520만 ▶매가 9억3000만

◈ 주택 ◈
광산구 도산동 대지37평 2층 상아아파트 앞 , 도로접, 점포가능
매매가 ▶2억4천

◈ 교회 ◈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5층 60평
매매가 ▶1억7000만원 승강기있음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먼바다 조망양호, 건축허가필2층주택, 별장, 2차선접
조정가능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00평당 120만

시내 / 시외 / 물건 접수바랍니다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
■ 내부 시설 완료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920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

급매 전문

2,300세대 아파트 출입구 최고상권 투자용 건물 [급매]

광주 동구 계림동
상업지역 대지280㎡ 건평171㎡ 연건평981㎡
지하1층, 지상5층, 승강기 있음
급매가 : 10억2,000만 → 9억9,000만

[특징]
현재 모텔이나 용도에 맞는 구조로 리모델링 할 경우 환상적인 빌딩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무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